

우리나라 조경학분야의 21세기를 향한 도전과 전망

이 규 목*

〈目 次〉

I. 회고와 반성

III. 21세기의 전망

II. 변화진단의 기초

IV. 조경분야의 대처방안

I. 회고와 반성

서구적 틀을 갖춘 현대적 학문으로서의 조경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4반세기가 지나갔다. 당시 1970년대 초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던 시기로서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린 UN 세계환경회의(1972. 6)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간환경선언문'이 채택되고 환경의 날 선언도 있었으며 미국조경가협회(ASLA)가 시대적 조류에 맞추어 새로운 조경의 정의를 내리기도 했다(1974. 11). 우리 학계는 미국의 학문풍토를 그대로 답습하였는데 이 정의에 입각한 조경의 개념을 그대로 수용했음은 물론 당시 미국의 학계를 주도하던 펜실바니아 대학의 맥하그식의 조사분석방법이 조경계획의 수단으로 한국에도 유행하였다. 이 과학적인 방법은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물론 당시 관악산캠퍼스로 이전계획을 수립하던 서울대학교 종합화마스터플랜에서 맥하그의 제자가 직접 활용하였고 그 외의 여러 캠퍼스 계획에도 이용되고 처음으로 설립된 조경전문회사인 한국조경공사(1974 창립)에서 수행한 각종 공원의 개발계획에도 적용되었다.

전문분야로서의 조경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던 때 조경학은 미국에서 정립한 학문을 원류로 해서 한국에 수용되었고 특히 분석과 종합을 기본 태도로 한 이 환원주의적 방법은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거의 모든 조경분야 프로젝트에 적용되었다. 이것은 당시 생태적인 접근을 표방하고 있었지만 인간을 내세워 인간의 자연에 대한 목자적 역할(stewardship of land)을 강조한 것으로, 자연보전의 중요성을 인간 중심으로, 인간주의적 관점에서 생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의 이러한 광역조경적 관심은 80년대에 들어와 조경의 예술성을 강조하는 정원단위의 조경으로 변화하였고 소위 예술작품의 영역에 속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소개된다. 이 조경의

* 서울시립대학교 건축도시조경학부 교수

예술화 작업도 그대로 한국 조경계에 영향을 주어 근래에는 이러한 경향의 작품이 시도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작품경향도 소개되면 또 이것도 모방하는 등 우리는 언제나 이들 서구 문화권의 영향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환경을 계획·설계·관리하는 전문분야'가 도입된 지 4반세기가 지나고 이제 이 분야가 정착의 단계에 있지만 그 기간 우리 주변환경은 더 나아진 것이 없고 비록 경제적인 부를 축적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느끼는 체감으로는 환경과 생활의 질이 더 악화되었다. 그 동안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팽창으로 수많은 프로젝트가 수행되었지만 조경작품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 필자는 IFLA한국총회(1994)를 계기로 과거 30년간의 한국현대조경작품을 총정리하면서 세계에 내세워 한국을 대표할 만한 조경작품을 찾으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다. 많은 편집진들과 여러 차례 토의과정을 거쳐 관심이 가는 작품들을 단상에 올려놓고 검토했지만 끝내는 "아직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우리의 조경분야는 우리 시대의 아픈 환경문제에 별로 기여한 바도 없고 우리 시대의 문화와 동 떨어져 예술문화의 영역밖에 있다. 현대 학문의 원류로서 미국과 유럽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들의 사고와 변화에만 집착한다. 서구문화의 변방에 있다는 것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우리는 조경학의 도입 당시의 개념과 방법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그 원류는 끈임 없이 생성과 변화를 거듭한다는 것이고 또 우리는 이를 따라잡지 못하면 낙후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엄청난 경제적 재난을 겪고 있지만 이제 다가오는 세기에는 상상을 뛰어넘는 환경재난이 도사리고 있다는 징후가 도처에 보이고 있다. 이제 21세기를 바라보는 전환기에서 필자는 세세한 부분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제쳐놓고, 굵게 보아 주로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패러다임 등장 of 당위성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변화진단의 기초

이미 철학을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감지하고 있듯이 서양의 기계론적인 세계관은 무너지고 있다. 필자(1995)도 다른 글에서 지적했듯이 분석과 종합이라는 과학적인 방법은 환원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데카르트적 접근방법으로 그의 정신과 물체를 구분하는 사고태도는 그 자체로 자연경시와 자연파괴의 원인이 된다. 이것은 서구사회의 주도적 패러다임으로서 인식주체인 인간은 자연을 대상화하면서 인간과 인간 이외의 자연계 사이에 골 깊은 이분법을 옹호하고, 그것을 인간의 궁지로 해석한 것이다(구승희 1998). 이것은 획일적인 원칙에 입각하여 유일한 질서에 집착하는, 이미 갈릴레이, 데카르트, 뉴턴 등에서 확립된 서양의 합리주의적 입장으로 서 '방법은 하나'라는 방법론적 단일주의(methodological monoism; 송영배 외 1998)를 표방한다. 이러한 합리주의적 입장에서는 개념화하기 어려운 순수체험이나 스쳐 지나가는 현상 같은 것은 무질서와 혼돈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영역의 밖으로 쫓아버린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무질서나 혼돈이 동서 융합의 철학자 이광세(1998)가 설파하듯이 바로 자연에 내재하는 만물조화의 창조적 율동이며 동양사상에 구석구석 파고들고 있는 ‘도(道)’ 혹은 ‘기(氣)’의 개념이며 이것은 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은 유럽근대문명을 세계유일의 보편주의라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유럽중심주의, 유럽의 중심성은 유럽에서부터 몰락하고 있으며 그것은 이제 다원주의, 세계주의 등 다양한 사고체제로 대체된다. 예컨대 서양건축은 우리에게 더 이상 원류문화로서의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다(임석재, 1997). 그 동안 수없이 서양건축을 도입·모방해 오던 우리도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 것을 찾아야 하며, 스스로 문화의 중심성을 확보하여 서양 것을 서양 것 나름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토대로 서양과 경쟁해야 한다.

니체를 비롯한 서양의 몇 철학자들, 심층생태학 등에서 주장하듯이 인간은 자연 속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환경의 위기에 대한 처방이다. 이 때 항상 대안으로 떠올리는 것이 동양의 방법이다. 인류를 파국으로 몰아 넣을 수도 있는 기술문명이 서구 이성의 결과라고 한다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조화로운 순응을 추구한 동양 이성이 생태학적 대안으로 떠오른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이진우 1998). 동양의 자연관은 물질과 생명, 물질과 정신 사이에 불연속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 전래의 고유사상 특히 동학사상을 현대적으로 해석·수용하려는 김지하(1996)의 ‘우주생명’은 바로 ‘기’의 다른 이름으로서 유물론과 관념론의 이원론적 분열을 넘어서는 통합적 우주생명활동의 개념이다. 기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생물과 무생물은 구분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동양철학의 천인합일사상 등에서 보이는 유기체적 일원론이 현재의 환경적, 생태적 위기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한국에서 발전시킨 퇴계나 율곡 그리고 근대의 해강 최한기의 학문이 중국의 전통철학보다 돋보이고, 우리 옛 신선사상도 원류는 한국이라는 점(진교훈 1998)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가장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이 바로 우리 곁에 잠자고 있었던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동서양의 결합은 만만치 않다. 동양의 정신과 서양의 기술을 결합하는 것, 소위 동도서기(東道西器)적 방법은 “절충주의적 기형아”(이진우 1988)를 낳을 수도 있다. 서양이 동양을 보는 편견도 심하여 그들이 우리 것을 받아들인다 해도 문화제국주의적 입장에서 보는 단순한 오리엔탈리즘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자유생태학자 머레이 북친은 동양의 정신이 현실적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너무 신비주의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환경문제해결의 실마리는 이제 서구문명이라는 기댈 언덕이 무너진 이상 우리의 것에서 찾지 않으면 달리 길이 없을 것 같다.

Ⅲ. 21세기의 전망

우리가 맞이하는 21세기는 20세기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다. 그것은 서구합리주의와 근대산

업문명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문명 그 자체의 변화를 예고하는 새로운 연대가 될 것이며 (조선 1995. 1. 1) 생명과 문화에 대한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생명적 가치를 우선한다는 것은 기계적·물질적 패러다임에서 생명적·생태적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말하며, 문화적 가치를 우선한다는 것은 정치·경제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문화중심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생명적·생태적 패러다임에서는 근대의 기계론적이고 무생물적인 자연관이 자연 자체에 고유한 법칙성을 보장하는 유기체적 자연관으로 대체된다. 기술적 사고에서 생태적 사고로 전환함으로써 기술행위 본래의 목적을 되돌아보고 기술문명에 성장의 한계를 설정한다. 생태적 사유의 혁명은 이 성장의 억제와 제동에 있다. 밀란 군테라의 문학작품에서 보이는 ‘느림’의 미학이 삶의 본 모습이라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이 사고체제는 데카르트와는 반대로 자연을 유기체적 생명질서로 봄으로써 자연에 대한 책임과 윤리를 내세운다. 대부분의 환경운동가들이 주장하는 것은 인류가 지구에 대하여 저지르는 행동이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믿게 하는 생태윤리를 강조한 것으로 그 노력에 비하여 성과가 별로 없다. 또한 그 활동이 생태학적이라기 보다 정치적인 요소가 많다.

그러나 단순한 환경윤리,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이유만으로는 행동의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 당신의 행동이 비도덕적인 행위이라는 이유보다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설득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여기에 생태와 경제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청된다 (Ashworth, 1998). economy는 어원으로 보면 oikos(家計라는 뜻)와 nomos(관리라는 뜻)의 결합이고 ecology는 어원으로 보면 경제와 같이 oikos에 logos(연구라는 뜻)가 결합된 것이다. 서로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간주되어 왔으나 ‘가계’는 하나이다. 이제 생태학적 경제는 상업주의에 의하여 파괴되는 환경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생태학자나 경제학자 모두가 좋아하는 “이 세상에 공짜란 없다”(앞책)란 말도 있듯이 생태적 패러다임시대의 철학은 본래 하나로 있던 경제학과 생태학을 화해시키고 다시 하나로 통합하여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도 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경제적 이기주의를 생태학적 공생주의로 전환시키는 것이 21세기의 환경윤리인 것이다.

문화중심의 패러다임은 앞으로 우리 시대가 문화주의시대가 될 것이며 문화인프라가 중요시 될 것을 예견한다. 한편으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원거리 네트워크의 형성과 함께 대륙정보회랑이 이룩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의 자율적 특성화 작업,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 될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관심이 있는 것은 도시단위의 지자체로서 도시의 정체성 살리기와 마을 만들기 나아가 예술문화 살리기 등 지자체의 독자적 문화창조 및 그 판촉전략이다. 이제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틀어쥐고 앞서는 방식은 더 이상 써서는 안될 것이다. 이미 리우환경회의 이후 지방정부는 저마다 ‘지방의제 21’에 따라 각자 나름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로서 이의 달성도 매우 어려운 과제이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21세기의 문화는 이 차원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를 넘나드는 정보가 더욱 극성을 부릴수록 지방마다의 독자성은 더욱 특성화되어야 할 것이며 그 방법은 새 시대에 걸맞는 문화창조 이외에는 없다.

Ⅳ. 조경분야의 대처방안

조경분야는 과거부터 그래 왔듯이 하나의 실천학문으로서 항상 시대적 요청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을 달리 해 왔다. 이제 서기 2000년을 맞는 시대적 전환기에서 21세기 조경분야는 이제까지 품어온 사고, 발상 그리고 처방을 뛰어넘는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앞에 언급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염두에 두면서 다음과 같은 우리나라 조경학의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본다.

첫째, 우리 조경분야는 이제껏 환경운동분야가 제기하고 주장하는 환경분야의 제 문제에 대하여 참신한 철학과 방법론을 가지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머레이 북친도 주장하듯이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환경·생태의 문제가 ‘운동’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구승희 1998).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적인 선택의 문제이며 구성원들의 직접적인 참여 속에서 창조적인 발상과 실천행동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조경계획가들은 바로 이 과정의 창조적 매개자로서 적극적인 참여자세로 현실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팔당댐 상수원의 보존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환경정책에 대하여 물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립을 토대로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수목생태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토대로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천만 그루 심기운동의 실현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

둘째, 우리 조경설계분야는 예술적 전문성을 확보하여 21세기에 우리의 도시에 걸맞는 새로운 예술로서의 조경양식을 정립해야 한다. 그 동안 고민해온 서구조경양식의 수용, 우리 전통 조경의 계승, 생태적 요구와 예술성의 결합 등 산적한 많은 문제가 기술적·학문적 연계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과 땅 사이의 본래적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조경문화의 이론복권’(LOCUS 창간호)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이다. 예컨대 도시공원의 문제는 오픈 스페이스의 양적 공급으로서의 공원 조성이 아니라 한국적 정원문화의 창조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환경의 문화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정원운동’ 같은 제안(오용성 앞책)도 긍정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 조경시공분야는 질 높은 생활환경을 창조하기 위하여 최고 수준의 기술능력을 마련하여야 한다. 조경은 이미 건설업영역에서 특수분야에서 일반건설업으로 분류되어 건축·토목분야와 어깨를 나란히 할만큼 제도적으로는 성장했지만 기술적·공학적으로 낙후된 면이 많다. 이제 건설시장의 개방으로 우리나라 건설산업분야는 본래의 기능 이외에 관리·금융·정보분야까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21세기의 다원적 생산체제인 포스트-포드주의(post-fordism)에 맞추어 수요특성을 파악하고 수요패턴의 변화를 조경분야에 수용해야 할

것이다. 조경기술자들은 정보능력을 극대화하고 창의력을 동원하고 아이디어를 짜내어 신 기술과 신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조경시공과 관리면에서 선진 외국에 못지 않은 질 높은 환경을 창조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경분야의 교육은 국제적 조류와 미래의 수요에 적응하면서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편되어야 한다. 과거의 도제적 교육(apprenticeship)을 탈피하여 스승이 알고 있는 것을 능가하는, 문제의 핵심을 뚫어 이를 개념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참신한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의 변화되는 범세계적·사회적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연, 인간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방법이 포함되어야 할 뿐 아니라 컴퓨터의 광범위한 활용, 커뮤니케이션 능력, 마케팅 개념 등 기술적인 문제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 조경학의 정체성을 다지기 위해서는 서구 일변도의 방법론을 극복하고 동양학과 접목된 우리의 방법을 찾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그 프로그램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 철학을 비롯한 조경과 관련된 동양학분야가 대학의 정규 교과 과정으로 편입되어야 한다. 동양학을 서양학문의 틀 속에서 특수학문의 범주에 속한 것으로 보지 말고 이를 보편화하여 동서학문의 조화와 융합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 서양사람들이 그들 특유의 개척과 발굴정신으로 동양학조차 자기 것으로 만들기 전에 우리 스스로의 손으로 다가오는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여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흙이요 나무요 벌레요 새요

성인 말씀 천만 아니요

우리 막내 세희늬 며칠전 가라사대요

그리고 이 몸은 왈 팔불출이요

(김지하, 연작시 <그 소, 애린>에서)

참고문헌

- 구승희(1995) 에코필로소피, 서울, 새길.
- 김옥동(1998) 문학 생태학을 위하여, 서울, 민음사.
- 김지하(1996) 생명과 자치, 서울, 손.
- 송영배 외(1998) 인간과 자연, 서울, 철학과 현실사.
- 오웅성(1998) “환경, 문화, 21세기”, LOCUS, 창간호.
- 이광세(1998) 동양과 서양 두 지평선의 융합, 서울, 길.
- 이규목(1995) “도시경관해석에 대한 한국적 패러다임 시론”, 터전, 3호.

- 이진우(1998) 녹색 사유와 에코토피아, 서울, 문예출판사.
- 임석재(1998) 한국현대건축비평, 서울, 예경.
- 진교훈(1998) 환경윤리, 서울, 민음사.
- 한국조경사회(1997) 조경분야의 발전전략, 제5회 한국조경사회심포지움 자료집.
- Ashworth, William; 유동운 역(1998) 자연의 경제, 서울, 비봉.
- Marshall, Lane(1981) Landscape Architecture into the 21st Century, ASLA.LOCUS 조경과 문화, 창간호, 도서출판 조경문학.